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II 코린토 6, 16)

6월 14일 연중 제11주일

오늘은 우리 성당 야외미사 하는 주일이다. 지금 이 글을 쓰는 날은 날씨가 괜찮지만, 주일에는 어떨까 싶어 조금은 걱정이 된다. 올해는 제발 자연 안에서 모든 신자들이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오늘 복음에는 대조적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한쪽에는 스스로 ‘안다’고 자부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들’이 있다. 당시의 똑똑한 이들은 종교적 지식과 법을 꿰뚫고 있던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었고, 반면 철부지들은 법을 제대로 배우지도, 다 지키지도 못해 늘 주눅 들어 살던 소외된 이 들이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느님은 당신의 깊은 신비를 똑똑한 이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보여주신다.

사실, 하느님 앞에 가장 완벽한 철부지 어린아이를 사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느님과 똑같은 신성을 지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당신을 완전히 비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 11,29-30)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며, 겸손이란 나를 끝없이 낮추는 태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매 순간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품어야 한다.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 가는 길이다.

모르면서 아는 채하는 것은 심각한 병이다.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층들은 이미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껍차 있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자기가 최고라고 믿는 교만이 눈을 가린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흙수저라 불리던 평범하고 못난이들은 달랐다. 그들에게는 복잡한 계산이 없었다. 머리를 굴리지 않고 선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함과 겸손함이 있었다.

·

오늘날 세상도 비슷하다. 조금 더 가졌다고 남을 이용하려 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 서로를 꺾아내리는 거친 세상 속에서, 하느님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 투명한 영혼들을 신뢰하신다. 지식이 많아지는 것이 타인을 판단하는 날카로운 무기가 된다면 모르면서 아는 채하는 병일뿐이다.

성경에서 무언가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 지식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대방의 내면을 꿰뚫어 보고, 그 감정에 깊이 공감하며, 마침내 내 삶이 그로 인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인들은 남녀가 혼인을 통해 이루는 가장 깊은 영적, 육체적 결합을 표현할 때도 이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하느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당신의 아낌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신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안다는 것은 곧 사랑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는 아들이시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온 삶으로 보여주신다. 우리가 그 하느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다. 어린아이는 부모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지 않는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온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따지지 않고 신뢰하며 따라간다. 이 완벽한 의탁이 바로 겸손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단순해질 때, 하느님의 뜻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 마음을 파고든다.

하느님은 결만 번지르르한 전문가들에게는 당신을 감추시고, 당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철부지들에게 당신을 통째로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하느님의 법은 우리를 얽매는 죄사슬이 아니라, 실천하면 할수록 우리 영혼에 깊은 자유와 기쁨을 주는 선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내 안의 복잡한 계산기와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마음을 닮으려 노력하는 은총을 청해보자. 자연 안에서 서로를 기쁘게 하는 사랑의 야외 미사였으면 한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저희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아멘.

날 짜	시간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보편 지향 기도
26 년 6/ 14	10 시		야 외	미 사		
26 년 6/ 21	9시	현재영(바오로)	김재훈(루갈다)	현동숙(소피아)		박유자(요안나)
	11시	황정순(크리스티나)	심묘현(안젤라)	최경애(아가다)		박정환(라파엘) 박현주(크리스티나)

공 동 체 소 식

◎2026년 6월14일 야외 미사 및 행사일정
★ 오전 10시 ~ 11시 미 사
11시 30분 ~12시 30분 점심식사
오후 1시 ~ 오후 일정 (진행팀 주관)
☞주보에 있는 행운권을 한 가정당 1장씩 써서
추첨 박스에 넣어 행운권 추첨에 참여하십시오.
▶장소: Bunker hill Park Grove #5
※반모임에 소속되지 않은 성모회원, 요셉회원들은
요셉회에 음식이 준비되오니 오셔서 드십시오..

◎반모임안내
▶4구역 1반: 6월13일 (토)오후6시-임장섭형제대

◎꼬미시움
▶일시: 6월21일(일) 오후12시 30분 신관 1호
◎빈첸시오 월레모임
▶일시: 6월 28일(일) 9시미사 후 신관 4호

◎한국학교 및 청소년 후원 기금 마련 골프대회
▶일시: 2026년 6월 28일(일) 1:00 PM
▶장소: Foss Park Golf Course
※ 참가 신청자는 포션을 만들어 제출해 주시고,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참가비를 선납해주시요.

◎2027 년 부활세레반 예비자 모집 안내
교리반시작: 2026 년 9 월 6 일(일)오전 9 시 30 분
청년교리반: 2026 년 9 월 5 일(토)오후 4 시 30 분

◎2026 시카고 지역 이나시오 침묵피정 (4박 5 일)
침묵 속에서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는 이나시오 영성 침묵피정에 형제자매님들을 초대합니다.
▶일 시:8 월 5 일(수) 오후 4 시- 8 월 9 일(일) 오후 3 시
▶장 소: Marytown Retreat Center
1600 W. Park Avenue Libertyville, IL 60048
▶대 상: 모든 신자들 (피정비: \$520)
▶지 도: 배영길 베드로 예수회 신부님
▶준비물: 성경책, 매일미사책, 필기도구
▶문 의: (847)757-6101, (847)452-5944

구글폼 신청



QR 코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당 대표 전화: 773 - 554 - 5426

“북 미주 수녀연합회 연례피정”에 최재순(에스텔)수녀님이
6월15일(월)~25일(목)까지 참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들의 정성 』

■교무금
이춘재(엘리사벳), 이순영(젬마), 조현정(에스더),
한호자(모니카), 박경철(레오), 함순희(율리안나), 박마리아,
김정옥(에스더), 전행자(루갈다), 윤영란(도로테아), 강젬마,
김수산(카리타스), 임장하(데레사), 모기화(카타리나),
정행자(세실리아), 전진숙(아네스), 황정용(보스코),
윤용진(요셉), 김정우(바오로), 고 연(요한), 이치섭(바오로),
박종현(야고보), 김앤디(안드레아), 배순기(시몬),
김영훈(미카엘), 이영수(안드레아), 김동진(가롤로),
강성철(요한보스코), 정찬일(안토니오), 김영덕(그레고리오)

○교무금 \$ 4,380.00 ○주일헌금 \$ 1,865.00
○감사헌금 \$ 50.00 ○토요헌금 \$ 51.00

■감사헌금: 정찬일(안토니오)

『2026년 6월 14일 미사 지향』

■ 생미사
Sr.배은정(요안나), 앤디킴(안드레아), 엄광식(토마스),
강수산(수산나), 장숙희, 박준우(마태오), 박크리스토퍼

■연미사
도복순(안나), 도상기(이나시오), 이궁구(마이클),
차연주(리사), 김선경(임마콜라따), 이선애(마틸다),
주영선(소피아), 김성애(마리안나), 최미희(루시아),
음규진(요셉), 임영일(바오로), 불쌍한 연옥영혼을 위하여

6월 16일(화)
김성애(마리안나), 김선경(임마콜라따), 최미희(루시아),
주영선(소피아) (연미사)
6월 18일(목)
멜리사버지스(Melisa Burgess), 김신희(데미뜨리아)
(생미사)

♣행 운 권 _____구역 _____반
이 름 (세레명):

교우 여러분들의 신속한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링컨우드 동물병원
LINCOLNWOOD ANIMAL HOSPITAL
Dr. Young R. Kwak (요셉)
(847) 677-7070
(773) 478-7070
6431 N. Cicero Ave (Cicero & Devon)
Lincolnwood, IL 60712



Oh Happy Day
Event . Hanbok . Photo
김 지영 (보나)
ohhappydayevent.com • (847) 313-1947



명품떡집 낙원
행복한 마음으로 빚은떡 정성껏 배달해드립니다.
우 동한 (다미아노)
(773) 588-8769 (24 hours) • (224) 392-8106



ZEPHYR DENTAL
제퍼 치과
Dr. Yong Chang, DDS
(773) 796-5928
(한국어 가능)
3531 N. Western Ave, Unit B, Chicago, 60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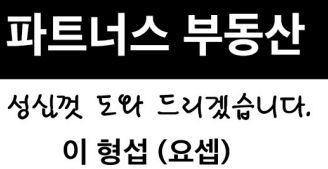
유엔아이여행사
YOUni TRAVEL
함께해서 더욱 좋은 여행사
이 안젤라 (847) 870-4300
younitravel@gmail.com
www.younitravel.com
960 Rand Rd, Suite 219-A, Des Plaines



차 장의원
차 유진
(773) 592-8689 (24 hours)



USED CAR SALE
이 재수 (프란치스코)
(773) 615-9887
2425 Green Bay Rd, North Chicago, 600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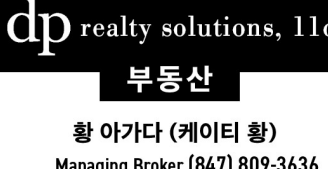
파트너스 부동산
성실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 형섭 (요셉)
(773) 203-1590
615 Milwaukee Ave #40, Glenview, IL 60025



배 페인팅
배 홍기 (그레고리오)
다년간의 경험, 교우 염가봉사
(847) 293-3163



Michael Zyung
정 재숙 (모니카)
(773) 761-3500
1415 W. Morse Ave, Chicago



dp realty solutions, llc.
부동산
황 아가다 (케이티 황)
Managing Broker (847) 809-3636
katie.dprealty@gmail.com
950 Milwaukee Ave, #222, Glenview, IL 60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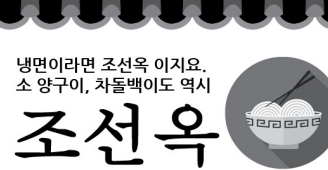
반포정
전공구이 전문, 추어탕
(773) 583-5209
3450 W. Foster Ave, Chicago



atom美
최 켜마
(847) 414-0863



B&W
정 형섭 부동산
(847) 334-3700
michaelzyung@bairdwarner.com



조선옥
냉면이러면 조선옥이지요.
소 양구이, 차돌박이도 역시
4200 N. Lincoln Ave, Chicago • (773) 549-5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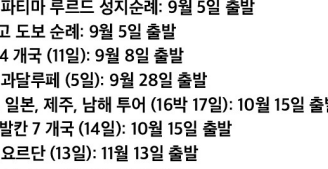
TAXI & AUTO SUN
736-3883
SUN Auto Werk, Inc.
이 문규 (라파엘)
(773) 736-3883 • (773) 736-4550
4626 W. Cornelia, Chicago, IL



Jacob Young
CUSTOM CLOTHIERS
맞춤 정장 • 맞춤 셔츠
2214 N Lincoln Ave, Chicago, IL 60614
312.929.9069



씨제이 여행사
2026년 성지순례
장 제니스 (켄마)
(773) 969-8687
chicagoasia@gmail.com
www.cjtravelintour.com
3520 Milwaukee Ave #103, Northbrook



- 코스타리카 (6월): 5월 20일, 9월 2일 출발
- 스페인 파티마 루르드 성지순례: 9월 5일 출발
- 산티아고 도보 순례: 9월 5일 출발
- 서유럽 4 개국 (11월): 9월 8일 출발
- 멕시코 과달루페 (5월): 9월 28일 출발
- 베트남, 일본, 제주, 남해 투어 (16박 17일): 10월 15일 출발
- 동유럽 발칸 7 개국 (14일): 10월 15일 출발
- 이집트 요르단 (13일): 11월 13일 출발
- 항공권, 크루즈, APPLE VACATION
- 내가 원하는 일정 나만의 맞춤 여행을 알려드립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믿고 다시 찾는...
한국장 의사 서 정일 (토마스)
Tom Suh, F.D.
(773) 720-1004 (24 hours)





“숲속의 집” 클라리지 양로원
지 춘자 (요안나) (847) 224-7925 • (773) 369-6160 700 Jenkisson Ave, Lake Bluf, IL 60044

www.chicagokmcc.org E-mail: chicagokmccorg@gmail.com

한국 순교자 시카고 천주교회

Korean Martyrs' Catholic Church at Chicago



본당대표전화: Office (773) 554 - 5426
4115 N. Kedvale Ave. Chicago, IL 60641

주임사제: Fr. 김 두진(바오로)	C (626) 610-6555
본당수녀: Sr. 최 재순(에스텔)	C (773) 366-0797
	C (773) 941-2648

2026 년 6 월 14 일 연중 제 11 주일

『 말씀의 전례 』

◎ 제 1 독서 탈출기 19,2-6ㄱ

◎ 화답송

◎ 우리는 주님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

○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라네. ◎

○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

◎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5,6-11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

◎ 복음 마태오 9,36-10,8

◎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입당성가	41	봉헌성가	142
	성체성가	154	파견성가	144

미사 시간 안내

토요 특전미사 6:00 pm (청년)

주일 미사 9:00 am. 11:00 am.
11:00 am (English)

평일 미사 (화요일, 목요일) 7:30 pm
(수요일, 금요일) 7:30 am

본당사무실

화, 금요일 9:00 am to 3:30 pm
토요일 11:30 am to 4:30 pm
일요일 8:00 am to 2:00 pm

월, 수, 목 휴무 (Mon, Wed, Thurs)-closed

화해성사

일요일 8:30 am - 8:45 am
10:30 am - 10:45 am

혼인성사

6 개월 전에 사무실로 신청

유아영세

매달 셋째 주일 11:00 am 미사 중